



윤 천 영 회장
전국농업기술자협회

농업인단체 대표의 한 사람으로서 농어업 발전이 아닌 농어업 희생이란 표현으로 농어업 대책이 논의되는 현실이 매우 안타깝습니다.

지금까지 UR, WTO와 DDA, 한·칠레, 한·미 FTA, 미국산 수입쇠고기 광우병 촛불시위를 거쳤음에도 우리 농업인에게 돌아온 것, 나아진 것은 하나도 없다. 농장에 있어야 할 농업인들이 도시로 뛰어나와 아스팔트 농사를 지어야만 하는 것이 참담한 심정이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식품안정성 확보를 외치는 촛불집회의 파장은 미국쇠고기 수입반대에 그치지 않고 우리 쇠고기가 안 팔리고, 산지 소 값도 떨어지는 매우 심각한 반대의 현상이 일어나고 있음은 정말로 가슴이 아프다.

도저히 해서는 안될 일들이 우리 농업인들에게서 일어나고 있다. 사랑하는 아내와 자식을 남겨두고 자살을 결행하는 농업인에게 그래서는 안된다고 말할 대안도 없는 현실이 더더욱 막막할 따름이다. 더구나 금년 2월까지 비료 한 포에 7,000원 하던 것이 20,000원까지 살인적인 가격으로 폭등하고, 사료 값, 면세유 값도 마찬가지로 오르면서 시설채소농가, 축산농가가 무너지고, 농기계 운행이 멈춰서는 이 현실을 우리는 감당해 내기가 너무나 어렵다.

UR협상이 진행될 때, 곧 식량이 무기화가 된다고, 이미 20년 전에 누누이 강조했었다. 바로 지금 세계 투기자금, 선진강대국이 유가전쟁으로 벌어들이는 수입보다 카길 등 세계 곡물 메이저급 다국적 기업들이 곡물·식량자원 무역전쟁으로 얻는 소득이 더 많다고 외신 기사가 보도하고 있다.

그간 정부는 식량자급 안정, 농업기반 안정이 정책으로 뒷받침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에너지 속국에서 식량·곡물 속국으로까지 예측되는 현실이 다가오고 있다.

우리 농업관련단체와 정부는 농어업 희생대책 활동을 통해 농어업 발전을 위해 좋은 입법·정책제안을 만들어서 다시는 농업인들이 거리로, 도시로 나서지 않도록 하여 주길 간절히 바란다. ㉞